



‘기후 변화협약’ 만들어야 하는 시대 기상재앙 ‘식량위협’

12월 1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회의에 세계각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교토회의의 주요의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체적인 감축안 마련과 강제이행을 규정할 의정서 채택이다. 기상재앙이라 불리는 엘니뇨현상의 주인공인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엘니뇨는 각종 이상기상현상을 수반한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따뜻한 겨울, 가뭄, 폭우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기상의 영향을 받는 각종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 여름 북한의 가뭄이나 9월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 10월말께

엘니뇨 현상극심...에너지소비 등 줄여야

의 이상저온 및 최근의 이상고온현상 등이 엘니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토의정서 채택여부에 따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고에너지소비국가들은 국민총생산의 감소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행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무감축이행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외로 머물 수는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소한 2010년까지는 90년 수준으로 동결될



◇12월 1일부터 열리는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편성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편을 강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일본 사진작가 순조 안마의 '후지산은 울고 있다'.

불교의 눈 친 환경산업 구조재편 시급

지구온난화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이 엘니뇨현상이다. 12월 열린 기상위크에서 지구온난화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해수면도 상승해 2천300년쯤엔 포도 배 복숭아 등 온대과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명태와 대구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차원의 기후관리기구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증가의 획기적인 감소와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경제에서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환경을 쏘아 과녁을 잘 맞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말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출 수 있다." (불만니항경)

공주 무령왕릉 영구폐쇄

문화재 줄속발굴 '교훈'...모형고분조성 공개

대표적 백제유적인 무령왕릉이 영구 폐쇄된다. 공주시 사적관리사무소는 10일 무령왕릉 등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의 원형보전을 위해 보수공사를 하고, 이후에는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대신 2천년가지 모형 고분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무령왕릉은 71년 발견된지 이틀만에 줄속발굴에 들어갔고, 2년 후 서둘러 일반에 공개할 때부터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많

이 받아왔다. 두 차례 있었던 보수공사 때마다 주먹구구식 보수라는 비판도 있었다. 발굴 당시 봉토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무령왕릉은 끝내 국내 최대의 발굴오류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20여년만에 다시 땅속에 묻힌 꼴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줄속발굴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교훈치고는 너무 큰 손실이라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구했다.

대선 앞두고 공무원비리 잇따라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택지개발예정지 지정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 4백10명이 지구지정 이전 1년여 동안 이 일대 땅과 집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을 징계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차량등록 대행사직원과 은행직원

생각정돈

우체국서도 항공권 발매
대한항공은 10일부터 서울 시내 구단위 23개 우체국에서 항공권 발매업무를 시작했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3천6백여개 모든 우체국에서 항공권발매가 가능하다.

학부모회, 학교폭력 상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폭력 상담전화로 개설했다. 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긴 경우, 교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우, 교사체벌 등에 대해 상담한다. 서울 02)790-5242, 전주 0652)231-9770.

클래식CD 무료배포 호응

경기도가 도내 초·중·고교와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클래식CD 3천여세트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D에는 '비발디의 바이올린협주곡 4중중 볼' 등 클래식 13곡, '선구자' 등 가곡 15곡, '에스터레이' 등 팝송 16곡, '진달래' 등 35편의 시낭송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CD에 이어 청소년용 VCR테이프도 배포할 예정이다.

무의탁노인들의 후견인 역할에 맡겨

아왔다. "영원히 노화도에 남아 '덕을 쌓자'는 가훈을 지키며 정다운 이웃들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30대교수 세계최우수 논문저자

성균관대 경영학부 이진창교수(38)가 최근 세계적인 논문평가기관인 영국의 '인바(ANBAR)정보'에 의해 올해의 경영학분야 최우수논문 저자로 선정됐다. 안바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우수논문을 뽑는다. 이교수의 수상논문은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트리(나무)분류기에 의한 시계열식에 대한 지적적근법'.

시험성적순 자리배치 '물'의

대전시내 일부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이유로 학생들의 좌석을 시험성적순으로

가짜화장품 중국까지 수출

무허가로 바셀린등을 원료로 화장품 10만여개를 만든 뒤 '랑콤' '시세이도' 등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 서울 남대문수입상가 등지에 판매해온 일당 6명이 12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원가 2백원 정도인 가짜화장품을 개당 1만원을 받고 팔아 1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중국으로 밀수출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체육학원 난립

체육관련학과 대입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규정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자격 강사를 고용, 각종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무허가 학원들이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학원들은 일반학원 수강료 규정금액의 16배에 달하는 월 8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섬마을 청백리에 청백봉사상

24년간 섬마을을 지킨 청백리가 제21회 청백봉사상 대상수상자로 13일 선정됐다. 전남완도군 노화읍 충무계장 박주홍씨(43). 육지로의 전근기회도 수차례 뿌리치며 평생 2백10명을 설득해 섬의 일주도로를 개설했고,

식물, 전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층석탑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